

# 벽화가 예쁜 우리 동네

우리 동네는 지현동이다. 오르락내리락 꼬불꼬불 골목길도 많다.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사과유래비가 있다. 그곳에 충주에서 처음으로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학교 갈 때 골목길로 가면 멍멍, 야옹 고양이와 개도 만난다. 그리고 집집마다 감나무, 오디나무, 포도나무가 담을 넘어와 학교 가는 길, 나에게 인사한다.

우리 집은 이곳에 14년 전에 이사를 왔다.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형이 4살 때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이다. 난 태어나서 계속 이곳에서 자랐다. 난 우리 동네가 참 좋다.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또 우리 집 골목길에 있는 산딸기, 뽕나무, 앵두나무에서 열리는 빨간 산딸기, 탕탕한 오디, 예쁜 앵두를 따 먹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동네가 더 멋지게 바뀌었다. 구불구불 골목길 허름한 담에 예쁜 사과도 그려져 있고 멋진 꽃도 그려져 있다. 또 사과에 대한 동화도 그려져 있다.

“엄마, 엄마, 저 빨간 사과 좀 보세요. 진짜 같지 않아요?”

“어머! 그래. 진짜 같다.”

처음 엄마랑 그 길을 갔을 땐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구경을 했다. 그다음

부터는 친구들과 가보고 혼자서도 가보았다. 놀다가 심심하면 벽에 그려진 동화도 읽고 그림 구경도 한다. 참 내가 쓴 동시도 벽에 쓰여 있다. 나는 유명한 사람들의 글만 그렇게 벽에 써놓는 줄 알았는데 멋진 그림과 같이 내 동시가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은근히 기분이 좋다. 그 동시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그 골목길 이름은 ‘사과나무 이야기길’이다. 내 동시가 쓰여 있는 길은 ‘글길’이고, 예쁜 꽃이 그려져 있는 곳은 ‘꽃길’이다. 또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곳은 사과 길, 멋진 음악가가 그려진 재즈 길도 있다. 중간중간 예쁜 화분도 걸려 있고 독특한 그림을 그린 타일이 벽에 붙어 있다.

예전에는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해서 들어가지 않았던 골목길을 이제는 일부러 골목길로 해서 집으로 온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지름길이 있는데도 자꾸자꾸 벽화 길로 가게 된다. 벽화 길은 살아서 날 즐겁게 해주는 것 같다.

예쁜 꽃도 심어져 있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존도 만들어져 있어서 좋다. 우리 동네가 꽃처럼 활짝 피어난 느낌이 든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난 친구들과처럼 가족여행을 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요즘은 엄마랑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여행한다.

엄마 손을 잡고 예쁜 골목길을 천천히 구경하고 찰칵 사진도 찍고 그러면 행복하다.

“지우야, 사진 찍어줄게.”

엄마가 핸드폰을 꺼내면 난 활짝 웃으며 브이자도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골목길을 지나 시내로 가서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가끔 영화도 보고 집으로 돌아온다.

“엄마, 이다음에 꼭 같이 여행가요.”

“그래, 어디로 가지? 지우랑 여행가면 정말 좋겠다.”

엄마랑 우리 동네 골목길을 지나오면서 난 엄마랑 여행가는 이야기를 하며 신나는 상상을 한다. ‘하하하’ 엄마와 나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에 퍼진다.

난 우리 동네 지현동이 좋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 아빠 손 잡고 걸었던 길이 있고, 윗집 앞집 누나랑 형들과 같이 놀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동네가 멋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신다. 이런 멋진 우리 동네가 세월이 지나도 더 멋지게 건강하게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지현동 ‘사과나무 이야기길’로 놀러 오세요. ‘뿌웅~’ 사과방귀도 향긋해요.”

**김지우**

충주 남산초등학교 5학년